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고 의지하오며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고 언제나 변함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6월 22일 (토) 제 1735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신앙 독실할수록 더 살고 잘 잔다!

뉴스위크, 최근 종교와 수명, 수면연관연구 통해 행복지수 향상 시사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연구 결과(RELIGIOUS PEOPLE LIVE FOUR YEARS LONGER ON AVERAGE: STUDY)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최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생활, 부부관계가 굳건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에서도 거의 무결

점에 달한다는 보도(A Major New Study Asks: How Does Church Affect Marital Health?)와 함께, 종교생활이 사람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 약 4년을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 이 수치는 오하이오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미국 전역의 부고 1000건 이상을 조사한 끝에 얻어진 결과다. 연구팀은 결혼 여부와 성별도 조사했다. 그 두 가지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회심리학·인성과학 저널에 실렸다.



양생활을 잘 할수록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사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 저자인 로라 윌리스는 오하이오주립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신앙 여부가 성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장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즉, 몇 년의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보다 평균 5.64년을 더 살았다. 그 역시 성별과 결혼 여부를 고려하자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더 오래 산 기간이 평균 3.82년으로 나타났다.

신앙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팀은 아이오와 주에서 발견되는 신문 디모인 레지스터에 2012년 1-2월 실린 부고 500건 이상을 먼저 조사했다. 부고 내용 중에서 사망자의 종교만이 아니라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사회적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간추려 집계했다.

연구팀은 자원봉사와 사회활동 참여(이 두 가지 활동은 모두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과거의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합해 이런 활동이 수명 연장을 설명해주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연구팀은 그런 활동이 영향을 주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고에 종교가 표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45년을 더 오래 살았다. 거기에 성별과 결혼 여부를 고려하자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6.48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는 술과 마약을 삼가는 것 등과 유사한 종교인의 생활방식 지침과 기도와 묵상 같은 스트레스 완화 행동이 수명 연장을 설명해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윌리스 연구원은 "종교에는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점도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 42개 주요 도시에서 2010년 8월부터 1년간 신문 웹 사이트에 실린 부고 1000건 이상을 조사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부고에 종교인 여부가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 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름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사 고

본지 주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
7월 8일(월)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양순관



김토마스(만규) 목사를 강사로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가 7월 8일(월)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양순관에서 열린다.

강사 김토마스 목사는 현재 서울 CCM(Christ Centered Mission, 그리스도중심선교)교회 담임으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대학원 음악석사,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든 콘웰 Th.M(설교학)과정, 귀국 후 한국 총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총신대에서 '예배음악철학'과 '설교음성학' 강의도 한 바 있다.

참석자: 목회자, 신학생, 찬양대
회 비: 10달러,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연락처: 미주크리스천신문(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시론 김인한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도 목사

7면



홍콩 범죄인 인도법...

16면

(3면으로 계속)

2019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위 과정

- B.Th. (신학 학사) Korean Track / English Track
- M.Div. (교역학 석사)
- M.Div. with a concentration in Church Music (교회음악 중점 교역학 석사)
- MACCP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 MAICS (선교학 석사)
- Ph.D. in Contextual Studies (선교학 철학박사)

※ 학사와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원격교육으로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

- 교수 - 학생 밀착형 ESL 과정
- 평신도대학

연관기관

- 산타페상담소 (소장: 김용환 박사)
- 기독교 - 이슬람 연구소 (소장: 김일권 박사)
- Glocal Leaders Institute (소장: 박에스더 박사)

본교 비전과 특징

- 전 세계 22개 노회, 48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한인교단
- 해외한인장로회(KPCA) 신학교
- 졸업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지(교회, 선교지)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성서대학교협의회 (ABHE),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학교
- 1-20 양식 발행: ESL, B.Th., M.Div., MACCP 과정
- 90% 이상 우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전 세계 18개국에서 수업)
- 12개 종류의 각종 장학금 지원
- 자격 요건을 갖춘 B.Th.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교육국의 무상 학자금 제공
-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 (Veterans)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혜택 제공

가을학기 등록

정회원 ats 정회원

오프라인: 8월 5일~8월 9일 / 온라인: 8월 12일~8월 16일

입학문의 및 상담

1-562-926-1023, Fax. 1-562-926-1025 http://www.ptsa.edu / office@ptsa.edu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 발행인 칼럼 ●

History Maker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단연 화제이다. 투수로써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이적인 평균 자책점을 비롯하여 압도적인 삼진과 볼넷의 비율 등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기록들을 만들면서 메이저리그의 톱클래스에 오른 것이다. 그에게도 시련이 많았다.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부상과 수술

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구속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속도보다 느리다고 하는데 느린 속도에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누구도 시도 못했던 정확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으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데 그 묘미가 있다. 며칠 전 U20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도 쉽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다. "연습과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역사적 성과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 대회에서 18세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가 골든 볼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의 어렸을 적부터 보인 처절한 노력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가 남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노력과 함께 무서운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젠가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축구 안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직 청소년인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 "언제나 축구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뒤집는 역발상의 통찰력,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무서운 집중력이 함께 어울려야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진다. "유리 온 아이스"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카츠키 유리라는 남자 피겨선수의 좌절과 새로운 도전을 담았는데 다시 일어난 그가 피겨대회에서 준우승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수년전 역사적인 실력과 성격으로 세계인을 열광시켰던 김연아, 그의 라이벌이었지만 결국 김연아 선수를 넘어설지 못했던 아사마 다오가 떠오르는 작품이다.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다소 논란을 일으키는 장면도 있지만 오프닝(opening) 주제곡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History Maker"가 그 제목이다. 그 곡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We were born to make history." 겉으로는 버젓이 활동을 해도 그 속살은 일본의 외톨이 은둔자를 지칭하는 히키코모리 같이 사는 일본 또는 세계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가사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는 가만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수많은 시련 앞에 일어선 자의 몫이다. 자기의 분야에 무서운 집중과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창조적 역사이다. 사실, 인간의 창조는 진정한 창조자의 모방이며 그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인간이 진정한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생각할 때 각 분야의 창조적 역사는 멈추어질 수 없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어떻게 노력하는가?"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묻기 전에 이미 history maker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묻지 않았는가?

“진실” 말하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걸려들어서 안된다!

CT, 칼 베이커스 목사가 전하는 기독교인의 ‘가짜뉴스’ 대응 4가지 점검사항 소개

진실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그렇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크리스천들의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사실이면 진짜 대박"(물론 절대 사실이 아니다) 같은 글이나 댓글을 볼 때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민망함을 느낀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크리스천들이 걸려들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되지 않기 위한 4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억해야 한다(A Matter of Integrity: Why Christians Must Stop Taking the Fake News Bait Including a simple 4-step check-list to help us stop passing fake news along).

가짜뉴스(Fake News) 문제가 뜨거워 관심을 끌고 있다. 가짜뉴스란 풍자와는 다르다. 풍자는 비판을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비틀거나 희화화하지만, 가짜뉴스는 그것 자체가 진실인양 유통된다.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봤지만 그 진위를 분간할 수 없을 때, 그걸 바로 소셜미디어나

만큼 중요하다. 당신의 블로그엔 오로지 진실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게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뉴스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중한 사람들조차 때로는 자신들이 미심쩍은 정보에 놀아나고 있는 줄 알아채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개설된 위장 웹 사이트(fake sites)에서 흘러나온다. 그런 정보의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 또는 의제를 방해하고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지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믿게 만든다.



교회도 가짜뉴스의 타깃이다. 가짜 뉴스가 던진 미끼에 크리스천들도 곤잘 걸려든다. 그것도 너무 자주!

블로그에 올리지 말고 우선 다음 네 단계를 거쳐 보라.

하라.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당신의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성경구절을 담

크리스천들의 세계관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뉴스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내 주장과 완벽히 일치하는 이야기에 특별히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 주제가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물론 크리스천들만이 가짜 뉴스의 낚시질에 걸려 그것을 유포하고 결국 그 생산자들의 목적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걸려들 수 있다.

그럼 나는 왜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명정한 짓을 하거나 거짓 글을 올리는데 관심 없지만, 나와 같

뉴스의 진위를 살펴보고 진실이 아니면 블로그에 올리지 말아야 진위 못 밝히면 올리지 말고, 진실하고 유용한 뉴스라면 올려라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늦게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가짜인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매사에 꼼꼼한 사실 확인(fact-checking)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설교를 할 때든 대화를 할 때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교회의 공신력이 이런 자세에 달려 있다.

1. 뉴스의 진위를 따져보라.

어렵지 않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힌트를 주자면 이렇다. 그 뉴스가 단지 한 매체 또는 몇 개의 편향된 웹사이트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건 분명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은 예쁜 그림을 올리는 게 훨씬 낫다.

한편 '대박'이라고 요란 떨지만 주요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뉴스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진짜 뉴스라면 더 이상 '대박'이라 느낄 수 없을 도했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뉴스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매체가 아닌

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글을 올리는 데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그걸 방지하면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노력하는 중요한 대의가 약화되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대의가 바로 사람들의 불확실한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라 한다면, 비록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결국 복음의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까칠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앙 독실할수록 더 살고 잘 잔다!

(1면에서 계속)
이전에도 신앙이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았다. 2016년 학술지 미국의사협회내 과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하버드공중보건대학의 연구팀은 미국내 중년 여성 간호사 약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서 1992년부터 2012년 사이에 4년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지 등 종교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예배에 참석한

AT NIGHT).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인 3명 중 1명이 수면부족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그런 수면 부족의 해결책이 어



국수면재단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연구팀은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잠자는 중간에 깨지 않고 최소 7시간 잠을 잘 가능성이 더 컸으며, 또

적 포용과 지원의 기회가 더 많으며, 흡연·음주·약물 남용 비율이 크게 낮다. 또 종교적으로 독실할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증거도 있다.

독실한 신앙인은 '신이 중재하는 통제', 다시 말해 신을 통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주로 규범적 믿음을 지지하며 당국과 사회적 통제를 더 잘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적어 더 오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관계가 강하면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줄어 들 수 있다. 연구팀은 2011년의 한 연구에서 이전에 잠들기 어려웠었던 참전군

술·마약 삼가는 종교인 생활방식과 기도·묵상 같은 스트레스 완화행동이 수명연장에 도움

사람은 교회에 전혀 가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3% 낮게 나타났다.

한편 주일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꿀잠을 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즉 사회적 포용과 지원의 기회 많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적어 수면의 질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RELIGIOUS PEOPLE TEND TO SLEEP BETTER AND LONGER

짜면 예배당에 있는지도 모른다.

텍사스대학(샌안토니오 캠퍼스)과 애리조나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년 동안 실시된 생활방식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더 낫다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했다.

지난 4월 '수면건강: 미

약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잠든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비해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잠잘 때 불안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며 7시간보다 적게 잠을 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좀 더 안정적인 정신건강과 상관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인은 불안·우울·분노 같은 감정의 수준이 낮고, 사회

인 중에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는 듯하다. 종교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어린이와 십대는 한 주 내내 더 늦게 잠자리에 들고 더 일찍 깨는 등 잠을 더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 말하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걸려들어서 안된다.

(2면에서 계속)
나는 “대박 뉴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거나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 불투명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뭐가 진실인지 더 이상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겐 진실만이 자산이다. 진실이 없으면 우리는 무일푼이다.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 우리는 말싸움에 능하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데 능해야 한다. 이것은 크

리스천에게 필수적인 사항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다른 여러 집단들과 똑같이 우리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무엇이든 말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듯하다.

결론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울리지 말라. 모르고 올린 가짜 뉴스로 인해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 신뢰할만한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울리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당신의 진실함과 신뢰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논쟁에서 패하는 것도 괜찮다.

기억하자!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누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시론

성직자와 평신도, 과연 성경적 호칭인가?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흔히 로마가톨릭이나 그리스정교회는 신부로 안수 받은 자들을 가리켜 성직자로 호칭하고, 그 이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평신도로 호칭한다. 이러한 호칭은 요즈음 개신교 내에서도 목사로 안수 받은 자를 성직자로 그 이외의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호칭들을 상호 대칭적으로 사용하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성직자는 특정한 상위 계층이고, 평신도는 일반 하위 계층이라는 인식의 표현이다. 과연 이러한 호칭과 인식은 성경적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그가 재창조한 세상에 정착시키셨다. 구약에 계시된 임시적이며 모험적인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위해 세운 3대 직무 즉,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 성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영원한 선지자가 되셨다. 남녀노소와 신분과 혈통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자가 되었으며(골2:12; 롬6:1 이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으며(갈3:27),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자가 되면서(엡2:7)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영원한 왕과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명령 즉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자신이 재림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더욱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왕직과 선지자직을 수행케 하셨다(마28:18-20).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성도들 각자 모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자신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삼았다. 이것이 소위 성경이 말하는 만민제사장론이다. 이처럼 성도 개개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직에 참여하게 되므로 더 이상 구약처럼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수행하는 직무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룩한 직무 즉 성직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이다.

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세우신 자신의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회의 표식을 유지하면서 교회와 성도 개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세우신 장로직과 집사직이 교회 내에 있을 뿐이다. 장로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교회에 다수의 장로(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각 장로(목사와 장로)들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일종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의 표식을 유지하는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이 조직체를 장로교회에서는 당회(session)라고 지칭한다. 당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청지기적으로 대행하는 조직이기에 당회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며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말씀을 통한 지도에 따라 그 장로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 그런가 하면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성을 채워주면서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직분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모두 거룩한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이며,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목사)를 다른 장로들보다 배나 존경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서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에서 목사만을 성직자로 장로와 집사 및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로 구별해서 호칭하는 것은 비 성경적이기에 더 이상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의 관계로 편 가르기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직유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신학과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9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원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대졸 및 동등학력자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신앙고백서 1부
- 명함판 사진(2"×2") 2매
-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원 서 교 부 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입 학 시 험 : 2019년 8월 3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개 강 부 흥 회 : 2019년 9월 3일(화)~5일(목) 저녁 8시
- 수 업 기 간 : 2019년 9월 3일(화)~11월 29일(금)
-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비손프리제

누군가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며 종자가 무엇이나고 물어서 '비손프리제'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놀라며 그 종류의 강아지는 이렇게 생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굴로 비손프리제의 사진을 보니 정말 탄탄으로 너무 멋있게 생겼던 것이었다. 사진에 나온 강아지는 머

리가 둥근 게 아주 이쁜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강아지는 그 종류라고 들었는데 왜 모습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내가 잘못 안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강아지를 오래전에 사서 우리 집에 둔 제 딸에게 물었다. 그 강아지가 비손프리제란 것이 맞냐고. 그랬더니 딸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왜 생긴 것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원래 그 종류의 개는 털을 잘 관리해주고 잘 빗어주면 그렇게 생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놔두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우리 집 강아지를 보니 아주 미안한 생각

이 들었다. 잘 가꾸어주지 못해 본래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미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죽기 전에 그 모습을 한 번은 갖게 해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개라도 그 개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엉망의 모습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사람도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자신을 관리하고 살면 멋지게 살게 되어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지 않아 엉망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인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처럼 멍청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갖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시편 일편은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과실을 맺는 삶을 산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오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그 결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오늘의 열매 없는 자신을 보며 탄탄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원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병준 목사

(뉴저지 행복교회)



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곳을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열린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며 못마땅해 하며 한 마디씩 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절반을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삭개오의 고백이 아닙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주인공 역을 했던 미남 중의 미남 배우라는 클라크 케이볼이라는 배우를 여러분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뛰는 것을 보고 한 신문기자가 "돈을 꽤 많이 모았을 텐데 왜 그렇게 겹치기 출연을 하며 몸을 망가뜨립니까?"하고 묻자 그는 임신하여 배가 볼룩한 아내를 가리키며 "머지않아 우리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해보니 백만 달러가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천만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그는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 욕망 때문에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다. 왜 설교할 때마다 우느냐고 물었더니 "회개하지 않으니 운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루이스 딜원(1632-1704)은 "개선이 없는 회개는 새는 구멍을 고치지 않고 계속 펌프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 밀턴(영국시인, 1608-1674)은 "회개는 영원의 공정을 여는 황금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영원의 공정은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천국을 여는 황금열쇠"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철저히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네 갑절을 갚아 주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된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는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뜻도 있지만 '돌이키다', '돌아서다'의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가 쓰인 신약에서는 '돌이킨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다',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의존하고 돌아옴을 뜻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은 생선을 가지고 일 등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썩은 생선과도 같은 타락한 인간을 회개시켜 최고의 인격자로 만드신다." 바로 삭개오와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만남의 결과

누가복음 19장 1-10절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가장 복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나 불행이냐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중고(三重苦: 입과 눈과 귀의 장애)를 겪는 어린 헬렌 켈러는 스승인 설리반을 만남으로 성녀의 반열에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랍이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 수가 성 우물가에서 불쌍한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의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만남 등등... 성경의 역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삭개오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리고는 여호수아 정복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진 도시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별장이 있을 정도로 발달된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요단 동쪽 지방으로 나가는 강의 건널목의 거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유하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도시를 "가장 신성한 영역" "팔레스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곳의 대추야자 열매와 발삼(balsam) 향나무에서 나는 향료를 세계의 시장에 내다팔아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예리고는 팔레스타인 가운데 가장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 동족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동급으로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다. 세리들은 세금을 더 부과하여 탐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매국노로 불리우며 사람취급을 못 받고 있었습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갑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고독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와 같은 죄인들도 영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갈망이 있었습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예리고성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분을 꼭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분이 지나가시는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길 가에 앉아 구걸하

여,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소경을 향해 "자, 눈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걸인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지고 세상만물이 보이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43절)? 바로 예리고성 들어오는 문 밖에서 늘 구걸하며 살던 시각장애인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뜬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예리고 성안에 퍼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여세를 몰아 예리고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이런 소문에 대해 궁금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보고자 하되"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He wanted to see Jesus eagerly"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

니까? 나는 이 말씀을 "삭개오의 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감동적인 고백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삭개오를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11절,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의 온 것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다. 삭개오를 보시며 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구원을 향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삭개오의 적극성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은 단지 우리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만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것이 헛되도다"(전1:2),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1:14) 그러면서 솔로몬은 다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4). 삭개오의 훌륭한 점은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물질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무화과 나무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시111:10)라고 했습니다. 둘째,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헛필드는 설교할 때마다 울었습니

다. 왜 설교할 때마다 우느냐고 물었더니 "회개하지 않으니 운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루이스 딜원(1632-1704)은 "개선이 없는 회개는 새는 구멍을 고치지 않고 계속 펌프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 밀턴(영국시인, 1608-1674)은 "회개는 영원의 공정을 여는 황금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영원의 공정은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천국을 여는 황금열쇠"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철저히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네 갑절을 갚아 주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된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는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뜻도 있지만 '돌이키다', '돌아서다'의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가 쓰인 신약에서는 '돌이킨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다',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의존하고 돌아옴을 뜻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은 생선을 가지고 일 등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썩은 생선과도 같은 타락한 인간을 회개시켜 최고의 인격자로 만드신다." 바로 삭개오와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글사전에서 헌신(獻身)을 찾아보니 그 뜻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째 말이 생각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하니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분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빠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할 때에 사탄의 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3면으로 계속)

어린이의 품성과 신앙

나이가 들수록 모사꾼이 되고 처세술로 무장이 되어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기만 하면 세상은 그 결과만을 내세우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신앙의 세계는 어떠한가?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한다.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짐을 표현할 때 '어린이' 같아진다고 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 수록 사람이 단순해지고 생각과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치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 주는 그런 어린이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고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에서는 당장 똑똑해 보이고, 사표하고 좀 까칠해 보이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인정받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짧

은 영적지식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들도 어린이처럼 들지 못하면 열매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것이다.

복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의 연한이 더할수록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 조금 억울해도 양보하고, 비참한 것처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간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항복문서를 받고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부탁을 한 뒤 성전에 올라 원통함과 비천함을 토해 내었듯이 그렇게 성경대로 반응할 따름이다. 어리석은 처신 같지만 거기에 복이 넘친다. 세상일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업의 어려움, 가정살림의 열악함, 미처 돌보지 못한 건강, 어긋난 자녀들의 문제 등등 힘든 광야 길에 불췌 불췌 등장하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수많은 조각조각 뿔어진 문제 덩어리를 들고 주님 전에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울며 그 마음을 토해낼 때, 주께서 친

는 목사인 나를 부를 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저씨'하고 부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처음 가는 식당에서 '혹시 목사님 아시신가요?' 하고 부르는 웨이터에게는 입꼬리가 올라가며 팁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을 본다. 목사의 일을 하니, 목사처럼 얼굴이 닳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 영성, 그 얼굴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그런 뜻일 것이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이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며 지나왔는가를 당신의 얼굴이 증명할 터이니, 삶에 대해 설명할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얼굴이라는 말은 '얼의 끝'을 뜻한다고 한다. 그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얼굴색이 피곤하고 적박하면 실제 그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것을 느낀다는

누가 보더라도 모나지 않아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향해 한 방향으로 가면 주께서 그렇게 긍휼이 여겨주시리라 믿는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의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 얼굴에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인품과 인격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아니었으면 몰라도 이미 믿는 자가 되었는데도 세상의 일들에 연약해지면 가족과 주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존귀하고 복되다

잠된 성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냐? 사시사철 푸른 잎도 좋지만,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냥 푸르다고 할 따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6.25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현재 과거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비슷한 길을 닦아간다는 데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가 되었는지요?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에서 윤 집사가

A: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5년 4월 30일은 월남(남베트남)이 패망하여 공산화된 날입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 협정으로 휴전(休戰)이 성립되면서 한때 50만에 달했던 주월(駐越) 미군을 비롯하여 한국군 등 연합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최신에 전투기를 비롯하여 10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신형 무기를 월남군에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1974년 10월, 남베트남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월남은 국제 무드에 쫓겼고, 1975년 9월에 월남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정파들은 대선을 앞두고 온갖 흑색선전을 뿌려댔고 시민단체, 학생회, 종교단체로 위장한 공산 프락치들의 유혈 폭력 '민주화' 시위로 베트남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과 연합군이 철군하자 베트남 곳곳에 침투한 공산 간첩들은 민주화 인사,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위장하고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벌이고 우익 지도자들을 암살하여 혼

경제, 군사, 장비에서 월등 우세했던 월남... 100여 좌익단체 선전전에 속수무책 무너져

란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 9500명, 월맹에서 침투시킨 인민 혁명당원 4만 명 등 전체 인구의 0.5% 정도의 공산 분자와 베트콩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하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학가, 언론계를 장악하여 조직적인 반미(反美)운동, 미군 철수, 남남(南南) 갈등, 우익 지도자 암살 등 폭력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현 한국의 상황과도 사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월맹이 남침 전쟁을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것은 1975년 1월 8일입니다. 1975년 월남은 월맹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개 좌익 단체의 선전전(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군대'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장비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허망하게 패망한 이유는 우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들 때문이었다.

공산군이 사이공에 입성하자 친북 좌파 시민들이 월맹기를 들고 나와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공산 통일이 이뤄지자마자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종교인, 학생 등 측근 주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월맹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反)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 같은 것을 할 우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거나 참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적화통일 된 후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보트를 타고 도망한 사람이 106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로 역사상입니다.

(13면으로 계속)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속에서도 존귀하고 복된 삶

-품성, 얼굴 향기

고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단순한 어린이의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밖에 큰일 났다고 하면, 그래요?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라.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 교회에 열매만 되면 교회는 금방 부흥될 것이다. 어린이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설교자의 음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대로, 곧이곧대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을 믿게 하려고 설교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가? 그러나 이 시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한다. 그저 상식과 이성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순종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다.

심령의 완악함과 신앙의 연륜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는 완악함과 강박함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그 복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그의 친교범위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어린이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맛보게 될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믿음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어도,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어도, 외양으로 보기에는 많

히 이 땅의 문제들도 친히 주장하여 주신다.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때 세상의 일들에 지지고 상했던 성도도 마침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어지게 된다. 신앙도 삶도 깊어진다.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신다.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근처에 방을 얻어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교회로 나오신다. 여든이 넘은 노인이신데도 얼굴빛은 소년처럼 너무나 밝은 것을 본다. 자녀들의 어려움들, 특히 나이가 오십이 넘어도 장가도 들지 않는 외아들까지 두고 계시지만, 어린이처럼 순전하시다. 그 얼굴이 밝고 환하다.

세상이 만드는 얼굴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간다. 신학교 시절 근처에 가장 보신탕을 잘한다는 식당을 가보면 주인의 얼굴이 견상(?)인 것을 보게 된다. TV에 많이 나오는 개 전문가의 얼굴을 보면 아주 귀여운 개의 얼굴을 닮았다.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나, 웃는 것도 개의 모습이다. 성도 중에 그 아버님이 한국에서 수사반장을 하신 분이 있으셔서 미국방문길에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았다. 현역시절에 범인 잡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얼굴을 보고 인상이 험악해서 신원조회를 하다보면 당일 필요한 건수를 올린다는 말이였다. 물론, 그 수사반장님의 얼굴도 범인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으시다.

그렇지 않겠는가? 밤낮으로 개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닮지 않겠는가? 얼굴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아찔한 생각이 든다. 생각을 숨길 수 없고, 그 영혼의 곤고함들이 얼굴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영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얼굴이, 성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찌들린 사람처럼 지치고 상한 채로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인 나의 얼굴을 보고, '네 아버지 왜 저러시냐?, 네 어머니 왜 저러시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아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안될 것 같다. 방법이 무엇인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가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인격과 얼굴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소천하신 소식을 들을 때 꼭 기사 옆에 적힌 나이와 그분의 사진과 연표를 보게 된다. 그 나이 때에 참 저렇게 훌륭하게 하나님님 사용하셨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좀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조금 더 일찍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게 된다.

인격이라는 것은 얼굴이다. 누가 보더라도 향기가 있고,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 (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 이상을 졸업하신 분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첨기는 교회주부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온라인: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pcsc 우편: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제출 기한: 2019년 7월 2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출은 e-mail (dkpcsc@gmail.com) 로 해주세요.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Davis Korean Church 603 L Street Davis, CA 95616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브리야트(THE BURYAT OF CHINA)

대부분의 브리야트족은 바이칼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시베리아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7만8천명의 브리야트족은 내몽골이라고 알려진 광대한 지역인 중국 북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들은 내몽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선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몽골인들과



가까운 친족관계이고 그 두 그룹은 비슷한 역사, 문화, 종교,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이런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브리야트족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골부족의 부류로써 분류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브리야트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타이어족 중 몽골어족에 속한다.

삶의 모습

브리야트족의 생활양식은 중국에 있는 다른 몽골민족들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족으로써 살았다.

그들의 문화, 사회, 경제는 말, 양, 염소, 가축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기르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수의 몽골인들은-중국 북쪽의 민족들과 친족관계에 있는-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밭을 재배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전통적으로 편평한 유르츠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크고 둥근 펠트제의 텐트를 가벼운 나무로 된 구조물 위에 펼쳐놓은 형태이다. 7-8피트 높인 유르츠들은 그들의 유목생활을 위해 이상적인 형태이고, 그들은 약 2시간 이내에 텐트를 치거나 해체시킬 수 있다. 20세기 동안 대부분의 브리야트족은 그들의 유목생활을 버리고 한 지역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텐트를 떠나

유르츠처럼 보이도록 지은 집으로 이사했다.

브리야트족은 2가지의 전통적인 결혼행식을 가진다. 부모님에 의해 정해지는 결혼과 납치에 의한 결혼. 후자의 형태에서 장래의 신랑 친구나 친척들은 신부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신부를 납치한다. 젊은 남자들은 대개 18살과 25살 사이에 결혼한다. 결혼식 때 신부는 전통적으로 동물의 지방조직 중 약간의 때 내서 시아버지의 가슴에 던지는 의식을 행한다. 만약 그녀가 표적으로 정확히 맞추면 그것은 다산의 표시로 여겨진다.

브리야트족의 여성들은 대개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전에는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령으로 부터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했다. 그들은 보통 여자아이의 이름을 남자아이에게 지어 주고, 남자아이의 이름을 여자아이에게 지어줌으로써 그 악령을 혼란시키려고 노력했다

신앙

브리야트족은 라마교식의 불교-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불교형태-를 따랐다. 이 종파는 티베트에서 발전했고, 나중에 몽골에도 퍼졌다. 불교의 토대가 되는 믿음 중 하나는 환생 또는 계속되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의 교리인데, 브리야트족은 이 순환의 교리를 믿는다. 브리야트족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고 이전의 생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생을 시작한다고 믿는다. 불교도들은 환생의 순환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해탈'이라

고 불리는 영원한 환희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종교 창설자인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중국을 인수한 이후에 모든 종교적 관행은 방해받았고, 브리야트족에게 있어 종교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오늘날 그들의 불교적 믿음중 대다수는 애니미즘과 섞여졌다.

필요로 하는 것들

브리야트족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이 브리야트족의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예수에 관한 영화나 기독교 자료들 중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탈북민 이한별씨 사연 유엔홈페이지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탈북민 이한별 북한인권 증진센터 소장 소개의 글이 지난 7일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시민사회와 각국의 인권 운동가들은 영문으로 실린 이 소개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 인권 인식과 개선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 소장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장마당을 경험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실상과 가족의 아픔을 증언하면서 북한인권 활동가가 되기까지 과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5월 28일 서울에 있는 유엔북한 인권현장 사무소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부패와 억압에 관한 보고서:경제활동의 대가' 발표기자회견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소장은 1983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출생,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활동을 경험한 장마당 세대이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1999년 탈북했다. 어머니(약정애·65)는 탈북 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두차례 강제복송을 겪으며 북한의 18곳의 감옥을 경험했다. 친오빠(이세일·42)는 2009년 1월에 강제 복송된 후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경성관리소에 수감됐고 현재까지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소장은 2002년 대한민국 입국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시청에서 3년간 탈북민정착지원 업무를 도왔다.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인권 증진센터(INKH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라는 NGO를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은 중국과 제3국의 탈북여성과 아동들을 지원하고,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며,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사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북한 구호 및 선교단체인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의 아내다.

엘라베마, 이번엔 화학적 거세 논란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엘라베마주가 낙태에 이어 화학적 거세라는 또 다른 논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케이 이베이 엘라베마 주지사는 10일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출소 한 달 전에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HB 379'로 명명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허스트 엘라베마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4일 엘라베마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상·하원과 주지사를 장악한 엘라베마주에서 인권 침해와 윤리 논란을 야기할 초강경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ABC방송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들면서 이 법안으로 인한 논란까지 야기된다고 전했다. 엘라베마주 의회는 지난달 14일 성폭행(강간)과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

지하는 초강경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 낙태 논란을 일으켰다.

엘라베마주에서 시행될 화학적 거세는 먹는 약 또는 주사를 통해 이뤄진다.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위한 처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수감자들은 약물 주입을 받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를 받으면 성적 흥미를 잃게 되고, 중국에는 성기능을 상실한다. 다양한 화학적 약물을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몸에 주입해 테스토스테론 등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막기 때문이다. 이베이 주지사는 서명 이후에 "이 법안은 엘라베마주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화학적 거세 처치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석방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다시 구금된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엘라베마주처럼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가석방을 전제조건으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미시간주에서 가석방을 조건으로 한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했으나 1984년 주 항소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수정헌법 8조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적 거세가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에 해당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근거로 화학적 거세 법안의 찬성 주장도 거세다.

VOA 방송, 북한 노동당 대외비 문건 '강습제강' 입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내용의 공식 문건이 북한군 내에 비밀리에 유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건만 놓고 보면 김 위원장이 남측과 미국에 공인해준 비핵화와는 완전히 상충된다. 다만 군부가 비핵화 협상에 반발하지 않도록 달래는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고, 문건의 진위도 논란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북한의 노동당 출판사가 고위 장교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대외비 문건 '강습제강'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발간됐으며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특별강습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주요 지휘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려고 다음 단계의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었다"며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 최후의 핵 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더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이 문건은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가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인민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미국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직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인 탈북자 리정

호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습제강은) 말 그대로 노동당, 더 나아가 김정은의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핵심적인 제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7일 "몇 가지 의혹이 있어 진짜 문건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건의 진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에게 잘 대해줬지만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나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도 그 사실을 안다"며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터프하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 보유 핵탄두 20-30기 추정...

국제평화·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20-30기로 추정된다고 17일 2019 세계핵군비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SIPRI가 지난해 추정된 북한의 핵탄두는 10-20기였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안보전략의 중심을 핵 개발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이 보유한 총 핵탄두 수는 1만3865기로 조사됐다. 1만4465기였던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전체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핵탄두 600여기를 감축한 효과다. 미·러는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실제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핵탄두 6185기 중 1750기, 러시아는 6500기 중 1600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양국의 합계 2000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미·러 양국의 전체 핵탄두 수는 줄었지만 핵무기 생산시설은 현대화됐다. SIPRI는 보고서에서 핵보유국들이 핵탄두를 현대화한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한스 크리스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으로 양에서 벗어나 기술면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3위 핵보유국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300기로 지난해와 같았다. 중국은 1년 사이 핵탄두 10기를 늘려 290기로 프랑스를 바짝 뒤쫓았다. 영국 보유 핵탄두는 215기에서 200기로 1년 새 소폭 감소했다. 양속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핵탄두 130-140기, 150-1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트럼프 선거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6월 갖은 조롱 속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적 기반도, 변변한 조직도 없이 맨손으로 대권에 도전했지만 결국 유력 후보로 꼽히던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4년 뒤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재선 출정에 나섰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실탄'에 해당하는 선거자금을 무려 4천만 달러 넘게 모금했다. 인적 조직 역시 훨씬 유능해졌고 전문성도 확보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6일 '2016년과 완전히 달라진 트럼프의 선거운동'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민주당 후보 20여명이 난립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도전은 매우 미숙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셈"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차원의 지지도 이미 확보했다. 4년 전 그는 켈리 앤 도울리 주지사 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당시 경쟁했던 공화당 대권주자들에 밀린 '왕따'였다.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거머쥔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출발선에 올랐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공동 모금운동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지난 4월 기준 8200만 달러나 된다.

트럼프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2016년 때 캠프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가면서 비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엔 현직 대통령에게 걸맞은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이 열리는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행사장 앞에 하루 전부터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했다. 밤샘을 각오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언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다는 열망과 친밀, 비상시각까지 행거 단단히 채비한 모습이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 CBS방송은 행사장인 올랜드의 암웨이센터 앞에 전날 오전부터 수백명이 줄을 섰다고 전했다. 지지자들 대부분은 가장 긴급한 이슈로 경제와 이민, 안보를 꼽았으며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고 싶어서 민주당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도 있었다고 CBS방송은 전했다.

"무르시 시신 카이로에 매장"...긴장 휩싸인 이집트

이집트에서 재판 도중 쓰러진 뒤 숨진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시신이 사망 하루 만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매장됐다.



무르시 측 변호사인 압델 모네임 압델 마크수드는 18일 기자들에게 "(무르시)가 카이로 동부 나세르시에서 가족들이 참석하 가운데 묻혔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압델 마크수드 변호사는 또 무르시의 장례 기도가 그가 사망선고를 받은 토라교도소 병원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AP는 이날 새벽 무르시 시신이 묻힐 때 현장에서 이집트 당국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고 전했다. 무르시의 아들 아흐메드는 이집트 당국에 무르시 시신을 고향인 북부 샤르키야주에서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무르시는 전날 오후 이집트 카이로의 법원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집트 국영TV는 그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전했다. 무르시 시신이 가족 등 소수만 참석한 채 매장됨에 따라 이집트 정부와 무르시 지지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르시는 이집트에서 처음 자유 경선으로 치러진 2012년 6월 대선에서 무슬림형제단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인 2013년 7월 엘시시 현 대통령의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수감생활을 해왔다.

중세교회의 대개혁운동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 그레고리 7세(1015-1085)를 중심으로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초반까지 대개혁운동을 단행하였다.

특히 가장 강력한 중세 교황으로 알려진 이노첸티우스 3세(1160-1216)에 의해 교회가 재정립되었다.

'가톨릭 신앙에 관하여'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규정하려는 교황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교령에 담긴 진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곳에 포함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성직자의 위상

교황권의 신장으로 인해 성직자의 위상이 덩달아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모든 성직자들은 교황의 권력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앙의 기본과 특히 죄가 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다.

중세교회의 신자들은 일생동안 성직자의 관계를 맺어야 했다. 처음 태어난 뒤에는 세례를 받고, 조금 성장하여 5-7세가 되면 세례 시 맹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견진성사, 결혼할 때에는 혼배성사,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연옥에 들어갈 것을 확인하는 종부성사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반드시 성직자를 대면하여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받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인 내용을 설교하였다.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세속 지도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성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한 가지는,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를

반도록 하게 하였다. 세속 영주들이 종교재판을 걸쳐 죄가 판명된 자들을 처벌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단자에 대한 루시우스 3세의 칙령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도록 하자. "최근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양하게 썩고 있는 이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가톨릭교회에게 위임된 힘을 일깨우는 동시에 황제권의 지원을 받아 거저된 목적을 가진 이단의 오만과 후안무치를 박멸하고, 거룩한 교회에 밝게 비치는 가톨릭의 단순성의 진리를 이단의 거짓 교리의 기준

국가의 야합 속에서 엄청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종교재판

종교재판은 이단에 대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생겨났다. 통일된 질서를 추구하던 교회를 방해하던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매우 인간적인 사명감이 발동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단의 출현과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거의 12세기가 지난 뒤 신명기 13장,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등 성경에 근거하여 이단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 하게 되었다. 이미 막강한 힘을 지닌 교회에 교황의 권한이 신장되었다.

1217년, 도미니크가 처음 탁발수도회를 창설하였을 때, 청빈한 삶을 중요시하였다. 심지어 거주수도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탁발수도회의 세속화와 함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교회의 권위에 편승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 칙령의 대부분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다. 종교재판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1834년이었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8)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는 일로 인한 영향력이 가장 컸다. 특히 성찬식을 주도하는 성직자의 축성과 함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적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성직자들을 우리로 보게 된 것이다.

교구를 담당하는 성직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주어졌다. 시간과 내어 성도를 돌아보는 심방사역이 성직자의 의무로 자리하게 된 것

파르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 전체를 통일된 교리로 묶어 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단의 출현이었다.

스러움으로부터 순수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해당 이단을 받아들이거나 옹호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에게 호의나 정신적 지지를 나타 내어 위로하거나, 믿거나 완전하게 하는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지 이단을 강화시키는 자들, 혹은 미신적인 명령으로든 자신을 위장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처벌을 선언한다."

"앞에서 말한 범죄에 대하여 개인

교황권 확대 따라 성직자 영향력도 극대화...고해성사, 영성체 받는 일 등 이단처벌 종교재판...재판관 횡포로 종교개혁운동과 개혁가들의 거침돌 돼

이다. 나아가서 각 교회를 맡은 성직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교 또는 주교 대리가 직접 순회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세교회 신도의 정체성이 교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기에 교구를 잘 운영하는 것은, 곧 교회를 안정시키는 지름길이었다.

성직자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놓여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교회의 방침을 전달하고 교육하였다.

극적으로 이단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단자에 대한 칙령

1184년, 교황 루시우스 3세에 의해 공식적 종교재판법이 출범하였다. 향후 종교재판에 근거가 된 법령이었다. 이단 판별과 심문에 대해서 주교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다.

적으론든 공적으론든 유죄로 판명된 평신도는 그 이단을 철회하고 즉시 정통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속 재판관의 판결에 맡겨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타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선언한다."

"그들의 이단을 철회하거나 가톨릭 주교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을 깨끗이 한 후에 자신이 철회한 이단으로 돌아간 자들은 어떤 심리도 하지 않고 세속 당국에 인도되며, 그들의 재산은 가톨릭교회가 사용하기 위해 몰수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 칙령의 대부분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다. 종교재판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1834년이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교회' (East Church NY, NJ).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몽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리빙스톤교회, etc.



성경도 신앙(80)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8. 교회 역사로부터의 교훈

우리는 먼저 교회와 국가가 신앙의 교훈에서 전적으로 다른 영역임을 배웠다.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거나, 혹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 로마카톨릭 교회가 해왔던 것 같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할 정당성을 성경은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

1)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복음의 새 포도주와 새 시대를 구약성경의 가르침의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배웠다. 그것은 이사야엘 자손들의 입장이 독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경구절을 일반화시킨 오류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났던 교회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약성경의 말씀과

적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극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일 로마서 13장의 본문과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기능은 전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에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교훈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1-2절).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다.

베드로전서 2장의 대목을 백한다면 정확히 같은 교훈을 대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주권자들과 왕들과 국가, 그것이 어떤 권세이든지 간에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라고 말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보다 더 명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관점 중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어느 것이든 기독교화를 운운하는 것은 항상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관점은 이단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만이 기독교 교훈을 이해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펠라기안적인 이단의 진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왕권이 점진적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흔들며 버리는 질문을 던지셨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그래서 교회가 점차 사회를 장악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세계의 삶을 주장한다고 가르치지는 커녕, 그 정반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19세기 말엽에 이런 가르침은 매우 낙관적이었고 세상도 낙관적이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는가? 결코 아니다.

성경은 마지막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

무엇이든 기독교화 운운은 불가능... 기독교적 삶 영위는 기독교인뿐 그리스도 왕권의 점진적 개선은 없어, 발흥과 몰락 주기적 패턴 계속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교회역사 속의 오류들은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은 콘스탄틴 황제 때 시작되었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로마카톨릭교회가 영구화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가가 더 힘이 있었지만 그 국가의 세력이 기울어진 후 로마교회가 그 주위를 전도하는데 성공했고 국가의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원리는 지속되어왔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오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고, 이것은 영국 청교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1662년 대 추방령(Great Ejection)이 발령되었을 때에야 사람들이 그 문제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전체 개념을 건성으로 넘겨버림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방향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재침례파들은 많은 방면에서 과도하게 나간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이런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2) 교회와 국가 전체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 성도의 입장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낙착된다. 곧 국가의 기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면에서

고 있다(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일반은혜로 세상을 다룬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를 달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골1:16-17),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엡1:21)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곧 이런 일반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권세들이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국가를 가르치며,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임무는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며, 국가가 기독교 교훈을 인생의 모든 방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화를 얻는 것'에 관해 말한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일은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기독교 교훈이 사회 속에서 누룩처럼 작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훈이 세상의 삶 속에 침투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국면들도 마귀의 포로 됨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 마지막은 위기와 심판이 될 것이며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다.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어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3) 개선이 아닌 발흥과 몰락

역사적으로 말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커녕 주기적인 패턴이 계속되어왔다. 곧 발흥과 몰락이 있었다. 큰 부흥이 만날 때마다 그 부흥이 있었던 전체 지역이 그 부흥으로부터 유익을 가졌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도 그 복음적 각성의 한 결과였다. 노동조합운동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런 부흥의 시대의 결과로 기독교화 되지는 못했다. 물론 그들의 행실이 어느 정도 수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잠시만 지속되었고 그 변화라는 것은 결코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개선은 잠시적인 것뿐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은 항상 잠시뿐이었다.

더 밝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한 시간들 다음에는 침체와 퇴보의 시기들이 이어진다. 이는 특히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문명의 긴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인 개선이란 것은 거짓된 사실임이 드러난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기복신앙의 열매

참고 성경: 왕하 7-12장

하나님을 섬긴 왕 여호사밧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을 결혼시켜 우상숭배로 유다를 더럽게 하는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보다 실리가, 정략결혼으로 부추기는 우상숭배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른 기복신앙의 병폐가 불신앙보다 더 악하다.

눈에는 눈 이에야... 악인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악인 경영법이다. 이를 악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극악하게 악이 다달으니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저보다 더 사나운 예후를 일으켜 멸하게 하시고 그에게 4대를 약속하시니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물질사랑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행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은혜를 나눈 높은 놀라운 복이다.

온갖 수단 방법으론 왕좌를 차지하면 세상이 제 것으로 착각해 반역이라 악쓰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발악을 본다. 결국 아합의 씨를 끝까지 악으로 만용한 듯이 최후도 비참히 죽었다. 권세가 큰 행복을 안겨다주었다고, 그리 탐욕을 부렸는지?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림이 가장 비극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생명의 은인 대부분의 믿음을 배은망덕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요아스를 보며 나의 지나친 의가 자녀들에게 덕이 되는지? 반감을 일으키는지? 여호야다를 보며 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 길을 막지나 않았는가 자숙한다.

사랑하는 주님!
기복신앙 여호사밧, 악한 기회주의 아합, 예후, 아달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갖는 이기주의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 고개 숙여 스스로 돌아봅시다. 사실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 본인이 심은 대로 받고 세상을 살다가네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고통뿐입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새삼스레 우리 주님을 알게 됨의 영광을 깊이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놈에 권력이 무엇이기에?

참고 성경: 왕하 9-17장

권력 맛은 맛보는 즉시 중독현상을 심히 일으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왕들의 치세를 말할 때 자주 등장 반복되는 문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이방인보다 악한 가증한 행위를 얼굴도 붉히지 않고 행함을 어찌 그리도 길이 참아 보시며 기회를 하염없이 주어도 도무지 알아들을 귀가 없는 암흑기의 남북 왕조 왕들이다.

(11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323)227-1400 /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믿음의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6, www.nachin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 이예배: 오후 1:20 영미인(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0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기기도회: 355번 244번 오전 Tel.(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9:45(영양, 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일/금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인간관계는 무엇과 같을까?



강인국 목사 (미시안아한인교회)

사람의 관계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완만한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는 그 자전거는 저절로 굴러간다. 부드러운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밟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전거는 쉽게 나아간다. 하지만, 길에는 오르막도 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열심히 페달을 밟는 수고를 해야 한다.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프고 근육에 쥐가 날 정도로 페달을 밟아야 겨우 그 고개를 올라갈 수 있다. 오르막길에서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뒤로 굴러가거나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상대방의 마음도 쉽게 알 수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파악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일 휘파람이고 기쁨이고 긍정의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사람은 죄성 때문에 언제나 그 좋은 감정은 식고 마음도 변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힘든 오르막

길을 만나는 것처럼 반드시 오해와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만나게 되면 다시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균열이 생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투쟁하듯이 애써야 한다.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존심을 꺾고 타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만을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내면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투쟁이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내면과 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외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관계회복을 바라는 나의 진솔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실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도하여서, 상대방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는 소원해지고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친구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평지에서 자전거를 탈 때도, 성실하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멈추게 되고 결국 넘어지고 만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아무리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

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고 관심을 보이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갈등의 슬로프(slope of struggle, 갈등의 미끄럼틀)란 말이 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가끔씩 서로를 향한 서운함과 오해가 발생한다. 그것은 갈등의 슬로프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간단한 화해의 제스처만으로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오해를 방치하면 더 깊은 갈등의 슬로프로 들어가게 된다. 갈등의 슬로프에 들어가면 갈수록 관계의 회복은 더 어렵게 된다. 더 많은 정성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그러다가 갈등의 슬로프가 급경사로 떨어져서 미움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갈등의 미끄럼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큰 희생과 보상을 지불할지

라도 한번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갈등의 초기단계-작은 오해와 미움이 싹트는 시기-에 빨리 내 자존심과 이기심을 비워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어서 상대방의 상처 난 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은 내 자신이 먼저 타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며(롬12:3), 타인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벧전4:8)고 말씀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인을 향하여 사랑과 존경을 표시해야 하며,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듯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빨리 그 갈등의 초기단계에서 해소해야 한다. dannyinkang@gmail.com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직접 전달, 투명성 등 재정집행 성숙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해단식

남가주 교계 주축으로 이뤄진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해단식을 갖고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에 대한 최종 경과를 보고했다. 이번 모금은 이재민 돕기를 위해 남가주 각 교회와 사회단체의 성금을 비롯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마켓 및 상가에서 가두모금을 전개해 1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에서 1천 달러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컸다. 또한 성금의 100% 전달을 위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합후원회의 성숙한 재정 집행의 노력 역시 돋보였다. 연합후원회 추진위원장 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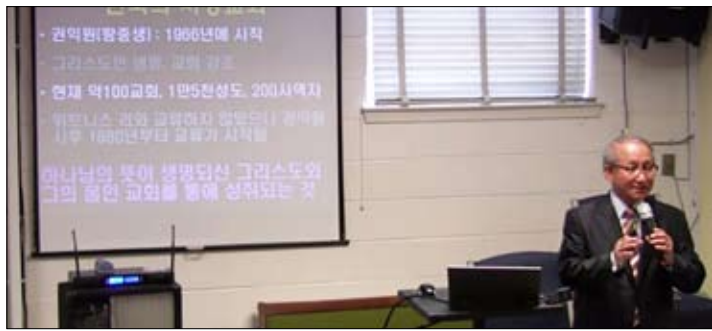
만 장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남가주 교계를 비롯해 80여 일반 사회단체들과 교민들이 하나가 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금 운동을 통해 8만1,550달러가 모금됐으며 강원도 이재민들에게는 1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장로는 "한인사회 모두가 고국을 사랑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지 일반 정성을 모은 성금이기에 100% 이재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교통비 및 운영비 등은 자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들어온 도네이션으로 사용했고,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심해서 기금을 쓰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미주에서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연합후원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뒀고, 여름철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냉장고 110대와 긴급 생활용품 구입할 수 있는 1천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또한 화재로 종탑과 예배당이 전소된 교회에는 400만원을 들여 종탑을 보수하기도 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한기홍 목사는 '연합하면 큰 일 할 수 있습니다(전4:9-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고성과 속초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동포사회의 마음이 전달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심지일반 모아진 기금을 전달할 때, 이재민들이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미주 교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심지일반에 모인 기금이 강원도 피해지역에 온전히 전달된 것과 모금과정의 투명성 유지된 것이 높이 평가된다"며 "이번 모금 운동과 나눔은 동포사회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 쾌거"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필라교협 주최 이단대책세미나에서 한선희 목사가 강의하고있다

'이단정의, 이단계보, 지방교회' 주제

필라교협 주최 이단대책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

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주최 이단대책세미나가 지난 5월 30일 새한장로교회(고택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단정의, 이단계보, 지방교회'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를 강사로 진행됐다. 한선희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의미하며 신앙성경에서는 이런 이단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이단의 특성은 △이단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 확하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하거나 가감한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한다. △이단들은 교주절대 신격화한다. △이단들은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부인한다. △이단들은 성경에도 없는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거짓 예언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는 △정통교회가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하는데 반해 이단들은 이를 거부한다. △정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믿는데 반해 이단들은 이를 부인한다. △정통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믿는데 반해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다른 복음(갈1:7-8, 고후11:4)에 권위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한다. △이단들은 반드시

마24:24에 기록돼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즉 기성교인들만 대상으로 삼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벧후 2:1).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반드시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한다. △이단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온상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한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이단들은 오류를 범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단을 예방하는 길로는 △가정생활이 따뜻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생활관을 실천해야 한다(빌 1:9-11).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경말씀을 삼고해야 한다(고전12:8-11). △기성교회 교인들의 영적 욕구(Spiritual Desire)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 속한 교회에 어떤 역할을 맡아 헌신해야 한다(엡 4:11-16).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도 불건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희 목사는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과 연합해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신인합일설을 가르치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양태론을 가르치기에 이단"이라 말하며 "지방교회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예수사랑교회 설립18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예수사랑교회 설립18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목사 임직식도 열려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강유남 목사)가 설립 18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오전 10시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직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전 총회장인 정완기 목사, 정진기 목사와 현 총회장 정진구 목사가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감사예배는 황용석 목사의

사회로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기도 김환창 장로, 김상용 목사 성경봉독, 시온찬양대 찬양, 정완기 목사 설교("기적이 일어난 교회"), 살전 1:2-4), Junior Yes Lord Christian Band의 특별 연주, 양경욱 목사의 봉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동 교회는 2040년까지 40개국에 40명의 선교사를 파견하

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강유남 담임목사 사회로 진행된 장로 임직식에서는 윤명식 장로가 임직했다. 또 교회발전전에 큰 공헌을 한 김환욱 장로에게 감사패를, 2018년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김지에 집사에게 전도우수상을 시상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노회장 황정욱 목사) 주관으로 거행된 방명근 강도사 목사 임직식은 노회장 황정욱 목사가 인도했다. 목사 임직을 받은 방명근 목사는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2018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의총회 뉴욕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또 이견화, 박옥화, 최미남, 이광미 등 4인에 대한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고시 합격증 수여 순서도 있었다.

(기사제공: 주예수사랑교회)



LA 제 27기 전강스쿨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어? 성경이 읽히지네' LA 2기 개강 전문강사스쿨...목회자성경방, 평신도성경방도 운영

'어? 성경이 읽히지네'(생터사역원 대표 이애실 사모) LA 2기 전문강사스쿨이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에서 입학감사예배를 드리고 개강했다. LA 1기를 졸업한 장재영 목사(이마고대교회)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LA지부장 김덕

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설교,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사명'(스 7:10)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를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유다 땅으

로 돌아왔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치는 것을 그의 사명이요 열렸다. 이 에스라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금번 전문강사스쿨은 LA 2기이며 6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한편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인도자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생터사역원 LA지부는 2년 전 설립돼 지난해 1기 전강스쿨을 통해 19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으며 전문강사스쿨 외에도 목회자 성경방, 평신도 성경방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변화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자세한 것은 전화 (213)500-2948 또는 이메일 ahajusa@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생터사역원)

heenlee55@hanmail.net

(8면에서 계속) 아하스는 수제 앳스르의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분반아 하나님을 버리고 목숨 걸고 이방신들을 섬기더니 결국 섬기던 이방신들의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먹히

고 아예 이방 신들이 공식적으로 드글거리는 신들 중 하나로 식민지의 신으로 하락한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앳스르에게 망해잡탕나라 사마리아로 전락한다. 남방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지

시대로 입 다물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웃을 짓고 매달린다. 사랑하는 주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맛에 동화되는 건 당연하지요. 풍부한 물질이 결국 독약이네요. 차라리 빠

듯한 가운데 절약하며 이웃과 나누고 사는 훈훈한 정서가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배불러져도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이 슬픔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백성들과 함께 구국 기

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의 길을 즐겨가며 힘써 반역하는 쓰레기 인생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과 어쩔 줄 모르시는 주님의 녹는 애간장을 보며 마음이 너무도 몽클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도 크고 커서 감읍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총신교회 말씀사경회

뉴욕총신교회(안재현 목사)가 6월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갖는다. 강사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집회시간은 금, 토요일 저녁 오후 8시 30분, 주일 오전 9시와 11시.

▲문의: (347)862-8133

스마트폰 강좌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88기)가 6월 22(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열린다. 강의 내용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종교급반 실용과정과 스마트폰에 대한 궁금증 해결 등을 강의한다.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이드폰 위주로 강의하며, 노트북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163-07 Depot Rd. #B-1 Flushing.

▲문의: (718)414-4848

김송자 사모 자서전 출판감사예배

김송자 사모(장석진 목사의 부인) 자서전 출판감사예배가 7월 1일(월) 오전 11시 뉴욕성결교회(이기용 목사) 본당에서 열린다. 예배 후 오찬이 있으며 저자사인회가 진행된다.

▲문의: (201)446-8383 김창완 준비위원장, (718)948-0339

뉴하트선교회 성전입당 감사예배

뉴하트선교회(정민철 목사) 성전 입당 감사예배가 7월 14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17 Herzog Place, Hicksville, NY 11801.

▲문의: (516)627-5700

하늘비전교회 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

매릴랜드 소재 워싱턴 하늘비전교회(장재웅 목사) 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이 6월 23일(주일) 오후 5시30분 열린다. 주소는 7565 Teague Rd., Hanover, MD 21076.

▲문의: (410)200-3859

담임목사 청빙

뉴욕한빛교회는 윤종훈 담임목사 은퇴에 따라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성경교회 목사로 정규 신학교 M. Div 이상의 학위, 담임목회 5년 이상, 이중언어 구사, 미국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사진 첨부), 학위증명서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목회비전 및 소신서(한영), 목회자 2인 추천서(연락처, 전화), 최근 주보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동영상 2회분(DVD, 혹은 홈페이지 링크). 접수마감은 8월 15일까지이며 서류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Senio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Korean Evangelical Church of NY/88-22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문의: HanbitNY2019@gmail.com

초등부 담당전도사 청빙

뉴저지 한소망교회가 초등부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2-5학년 담당 파트타임으로 자격요건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주일학교 사역에 사명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영어 설교). 지원서류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신학대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worshippingiano@gmail.com

3만5천여 입양아들에 '자유의 빛' 을!

월드허그파운데이션 2019 후원의 밤 성료

입양아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 월드허그파운데이션(WHF, 이사장 김명순) 후원의 밤이 6월 13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김명순 이사장은 "목회자, 정치인, 범조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인 2만여 명 등 총 3만5천여 명의 해외입양아들이 '자유의 빛'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안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자 멜로디함(작가, 야후온에어 호스트)의 개회선언 후 송병기 목사가 축복기도 하고 오프닝 공연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례 후 이사장 인사말 및 신임 회장 소개가 있었으며 안토니오 리베라 신임회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존 신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신 사무총장은 "WHF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입양인들을 만난 적이 없으며, 입양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입양은 한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통스러운 학대 가운데 살고 있는 입양인도 있고, 3만5천 명 이상의 미국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 없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허그재단 아시아 지역 대표 서대천 목사 인사영상, 조이 알라시의 동영상도 상영됐다.

조이 알라시는 "시민권이 없는 것을 경험한 입양인으로서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권이 없으면 학자급 용자가 거절돼 교육 기회를 잃으며, 미국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최근의 이민 분위기가운데 입양인들은 불법이민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매년 입양인들이 어린나이에 떠나는 말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가족 없는 나라로 추방되고 있다"며 WHF가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축사는 박효성 뉴욕총영사(대독), 뉴욕한인회 김영덕 이사장, 뉴욕교회회장 정순원 목사 등이 했다. 또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존 신 사무총장에게,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



월드허그파운데이션 2019 후원의 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또 WHF의 도움으로 52년 만에 시민권을 받은 조이 알라시의 시민권 선서식을 축하하기 위해 휴스턴에 갔던 이야기를 하며 "현재 WHF는 8명의 입양인들을 돕는 단계로 성장했으며, WHF의 도움을 받기위해 서류를 준비해 기다리는 입양인들은 40명에 이른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입양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허그재단 아시아 지역 대표 서대천 목사 인사영상, 조이 알라시의 동영상도 상영됐다.

조이 알라시는 "시민권이 없는 것을 경험한 입양인으로서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권이 없으면 학자급 용자가 거절돼 교육 기회를 잃으며, 미국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최근의 이민 분위기가운데 입양인들은 불법이민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매년 입양인들이 어린나이에 떠나는 말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가족 없는 나라로 추방되고 있다"며 WHF가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축사는 박효성 뉴욕총영사(대독), 뉴욕한인회 김영덕 이사장, 뉴욕교회회장 정순원 목사 등이 했다. 또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존 신 사무총장에게,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



월드허그파운데이션 2019 후원의 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독), 뉴욕한인회 김영덕 이사장, 뉴욕교회회장 정순원 목사 등이 했다. 또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존 신 사무총장에게,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

원이 길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용걸 신부의 만찬기도 후 WHF 소개 동영상, 축하공연(테너 황진호, 도인순 이사), 옥션 등이 있었다.

WHF는 고유번호 501(c)(3) 아래 입양아 문제에 중점을 둔 비영리조직으로 법률서비스와 입양관리, 입양지원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아들에게 법적 대책을 제공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입양관리를 옹호 장려하며 불공정한 입양권 문제를 미국과 한국 공동체 조직 및 의원들을 교육한다. △입양아 인식을 촉진하고 입양아들이 그들의 뿌리에 대해 알기위해 문화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가 에티오피아교회와 함께 개최한 VBS를 마치고 참석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 고백 주제에 맞춘 프로그램 진행 샬롯장로교회 VBS, 에티오피아교회와 함께

매년 다민족 여름어린이성경학교(VBS)를 이어오고 있는 샬롯장로교회(나성균 목사)가 2019년에도 6월 13일부터 사흘간 에티오피아교회와 함께 했다.

본 교회 교육담당 정준승 목사 중심으로 여러 교사들과 엘카봇이반젤리컬처치 교육부 리더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매일 마지막 시간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 전과는 확산 전도사가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복음적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최선을 노력했다.

금년 여름성경학교는 '우리의 삶이 뜻 같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항상 주제에 맞는 노래를 배워 익혀 주제를 기억하고 배우게 하는 음악시간과 성경공부,

공작, 야외 게임 등 세 가지 특별활동반을 통해 참여케 하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함으로 세속적인 게임에 몰들기 쉬운 어린이들을 말씀에 집중케 하는 시간으로 인도했다.

오후 5시부터는 저녁식사가 제공됐다.

나성균 담임목사는 "여전도회를 비롯해 온 교우들의 헌신이 이 성경학교를 가능케 했다"며 "단합해서 수고한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중고등부 수련회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연합수련회로 열린다. 버지니아주립대학에서 개최되는 Grace Youth Retreat에 동참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과 영적 도전을 극복하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예상된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패밀리터치 제 14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제 14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가 6월 12일 버크셔 벨리 골프 코스에서 열렸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패밀리터치의 미션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세우므로 온 세대가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후원하고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Lexus Englewood

가 후원인 스폰서들, Samsung, Hitron, Mitsosa, Baik Family Foundation 등 뜻을 같이한 사업체들이 후원했다.

패밀리터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부,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추천 도서**
-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키일 아이들만 / 규장)
 - 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비 / 규장)
 -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 / 규장)
 - 행복예수 (김형석 / Denstory)
 -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 후원**
-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 복음사 562-865-4949
 -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원로칼럼

목회서신(상)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오랫동안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 가운데 달인이 있다. 그러나 목회에 달인은 없다. 달인인 양 처신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오만에 빠진 사람이거나 작각증 환자일 뿐이다. 학문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목회 역시 왕도도 없고, 대가도, 달인도 없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목회가 술한 해를 넘겨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대부분 아쉬움과 허전함의 굴레에 걸리게 된다. 목회란 과찬도, 폄하도 금물이다. 목회 평가의 척도는 성실과 최선이라야 한다. 필자의 바람은 모든 목회자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 전이나 이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적박해져 가는 목회현장과 풍향을 바라보노라 면 예상일이 아니라는 걱정이 앞선다. 단일 지도체제의 위력을 한껏 뽐낸 바티칸의 지도력이 던진 신드롬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지도력의 약화와 교회현장의 부정적 변동, 거기다 약화일로를 치닫는 인간심성, 현장목회를 마무리하고 객관자적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필자의 소회를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피력해 보려고 한다.

은퇴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글

A목회자의 경우 50대 젊은 시절 총회사가 정한 70세 정년과 상관없이 65세가 되면 은퇴하겠다고 설교시간에 소신을 밝혔습니다. 15년 뒤의 일이라 속고없이 던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15년이 다가오자 당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정식 당회 안건으로 다루어 한다." 당회 기록에도 없고 문서에도 없는 은퇴가 공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 여론은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하신 말씀은 회의록이나 결의문서보다 중요하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와 함께 원로목사의 예우도 받지 못한 채 목회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은퇴식을 끝내고 자동차에 오르자 '내가 어디로 가지?'라는 막막함이 운무처럼 앞을 막더랍니다. 그리고 상실감, 배신감, 우울감, 허무감 등 불량한 감정이 가슴을 누르고 두 눈에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목회 재임 시 소위 측근집단 하며 곁을 맴돌던 그 사람이 섬섬군단의 중대장으로 나선 꼴은 실망의 골이 너무나 깊어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린다는 그를 어느 날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아니고 예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저런 일로 가슴이 아팠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잊고 내려놓으시죠. 그 결단이 빠를수록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빨라지고 건강 회복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구고 매만졌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언했던 그 약속을 당당하게 지키고 목회를 내려놓았다고 자신을 조정하십시오. 그런 결단이 늦어질수록 내게로 돌아오는 정신적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라는 요지의 고언을 전했지만 그 이후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필자도 그런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전하고 서운하고 막막하고, 아무개가 섬섬하고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솟구치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몸짓이 저 자신과 교회와 후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사고의 전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몸짓을 하면서부터 심신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거리 원거리가 좋습니다. 목회할 때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안테나를 세우며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잘하겠거니, 알아서 하겠거니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의 지원군이 되면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렇게 해? 저건 아닌데 원로인 나를 제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섬섬마기가 총횡무진 활개를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로와 후임 사이를 오가는 사탄의 메신저들이 나타나 두 사이를 가르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내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도 내 양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바뀌고 목자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울분과 분통을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의 입장입니다. 한평생 기지개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늘에 머물며 눈물과 한숨과 인내와 기도로 내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고 교인들의 관심이 카메라 렌즈 초점이 바뀌듯 달라졌습니다. 당사자 말고 누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남편의 외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 동행길이 열려야 합니다. 한평생 위로자로 살아온 사모님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쫓겨 못다 했던 배려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분이 계시지요? 내려놓으시지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가볍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후임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야 그 칭찬과 격려가 들고 돌아 내게로 돌아옵니다.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iamcspark@hanmail.net

“국가인권위 가짜 혐오·차별 프레임 벗겨내겠다”

혐오차별 동성애 독재대응 비대위 출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혐오차별포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결성식을 갖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25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동성애 옹호·조장 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강력 저지할 예정이다.

비대위 총무인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넘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시도는 동성애

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본격화된 것이어서 비대위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인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국가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을 통과시키려는 데 있다"면서 "이미 유사한 법률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성,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만 해도 조사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장 등에서 해고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 혐오·차별 프레임의 실체를 밝히고 벗겨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포럼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잘못된 의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개인 정치적 돌출행동 복음사역에 큰 걸림돌”

한교연, 전광훈 대표회장에 질타와 현 시국 입장 발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질타와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현 시국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전 대표회장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편향된 정치적 돌출 행동이 자칫 하나님에 한 국교회에 요구하시는 선지자적 사명에 대한 왜곡으로 세상에 비쳐져 복음사역 전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자각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회장의 시국선언문 발표 후 한국교회 내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한교연은 "대사회·대정부적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의 잘못과 죄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미러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울바를 정책으로 국정에 임할 것'과 '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국회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지난 11일 충남 대전에서 열린 제8-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번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한기총 회원활동 중단하겠다”

기하성 정시실행위원회서 행정보류 결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11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에 반발,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단행했다. 행정보류는 탈퇴와 함께 교단이 연합기관에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중 하나다. 모든 활동의 일시중지를 뜻한다. 기하성이 한기총 회원 교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한기총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하성은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시실행위원회를 열어 한기총 행정보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하성은 "한기총의 현 지도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시각과 관점으로 (한기총) 정관 전문에 표명한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한기총 회원교단으로서의 자격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기총 정관의 전문에 따르면 한기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연합과 일치 를 이뤄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일체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하성은 "안타깝게도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일관된 여러 가지 시국선언 및 각종 성명서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관 전문에 표명한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문제인 대통령 하야'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기도 중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각계각층과 대화를 나눈 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독교 정치인에 불교신앙고백 강요, 종교자유 침해”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서 분석...종교편향 왜곡문제도 지적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공적 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자유 본질을 고찰했다.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해 강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선거 때만 되면 개념조차 불분명한 정치인의 종교편향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편향과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야당 대표가 사찰을 방문했다가 아기부처를 찌는 예식을 안 했다고 벌어진 논쟁"이라며 "세속적 행사가 아니라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에게 불자의 신앙고백을 강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선 타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거꾸로 불교 정치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신경을 하라고 해서 신앙고백을 강요했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믿지 않는 신앙을 강제하면 당사자의 존엄성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독교인 정치인에게 종교적

인 불교의식을 강요하면 안 되고, 불교 신도인 정치인에게 강제로 사도신경 외우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적 공간에서 종교성을 없애고 무종교화를 추구하려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적영역에서 종교성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또 다른 종교편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정의는 도덕전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의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도덕전쟁"이라며 "결국 법과 도덕이 분리될 수 없고 그 배경엔 종교적 윤리성과 정신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 서구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원리, 가치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신, 기독교 윤리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도덕 문제에 있어 공공성, 가치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도덕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종교와 연결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본질에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거기에는 종교실행의 자유, 즉 누군가에게 자기 종교를 설명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프랑수아처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다 보니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가치중립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적 방식으로 일종의 종교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래 간직해 평화로 화답하겠다”

새에덴교회 한국전 참전용사 13번째 초청 행사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입구에 몰린 인파 사이에선 감사 인사가 끊이지 이어졌다. 69년 전 한국전쟁에서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향한 고마움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과 가족의 헌신을 잊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다.

이날 교회를 찾은 이들은 한

국전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필립 샬러리 미군 해병대 예비역 중장 부부와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한 고(故)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후손 등 5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새에덴교회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행사'의 13번째 손님들이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선두에 선 기수단과 함께 양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예배당으로 입장하자 현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방문단의 두 손에는 한국전쟁 참전 당시 군복을 입은 자신 혹은 가족의 흑백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려져 있었다.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황우여(전 사회부총리) 장로,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평화기원예배에선 양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발표됐다.

이석현(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졌다"며 "소중한 아들과 딸을 보내주셨던 가족들의 눈물과 노고를 항상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를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처럼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 세계선교협의회 선교지

세계선교협의회(CWM) 선교지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이주민·탈북민 사역 단체들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CWM은 1795년 영국에서 설립된 런던 선교회가 모태로 한국 최초의 성경인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1882)를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와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

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최근 156쪽 분량의 'CWM 3차 선교 지원 프로그램 백서'를 펴냈다. 백서엔 CWM 선교기금을 지원받은 이주노동자 사역 기관과 결혼이주민 지원 단체, 탈북민 사역 단체들이 진행했던 사업이 수록됐다.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부르심

나는 신학공부를 좋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러면서도 나는 일반 교회 목사나 교도소 목사가 되는 걸 생각해보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이돌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었다.

며칠 후 흐린 기억속의 어느 날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한국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빠를 보러 갔던 날이었다. 알코올중독

자인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잘못된 길로 접어든 오빠는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면회를 갔던 나는 가슴이 아파서 오빠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 나의 방문이 오빠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누군가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빠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빠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

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오빠에게 하기를 바랐던 것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그들을 네 오빠처럼 대하라.”

그 때 교도소 선교가 내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 선교를 하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미국에서 보고 싶었던 영적인 부흥을 재소자들과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이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슬퍼하거나 울며 지내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대신에 재소자들을 도움 방법과 출소 후 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감된 가족을 도움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 126:6).

목사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적 추수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추수하시도록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노력하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까운 형무소나 교도소를 방문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재소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형무소 사역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죽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혈뇨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주의 필요

건강검진을 할 때 흔히 소변검사를 한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소변검사를 할까? 소변 검사에서는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소변에 감염이 있는지 혈뇨(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대부분 건강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은 소변검사서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변에서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K씨는 일주일 전부터 소변색깔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조금 붉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전부터는 피가 섞인 것처럼 붉은 소변이 나왔다. 동시에 소변을 볼 때 하복부가 불편한 것을 느꼈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었다. 평소에도 월경이 불규칙한 K씨는 그것 때문으로 여겼는데 점점 소변에 피의 양이 많이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아왔다. K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담배나 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틈만 나면 운동을 하는 편이고 결혼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신혼이였다. K씨를 검진했다. 혈압이나 맥박은 정상이고 심음과 폐음도 정상이었다. 하복부 촉진 시에 통증이 느껴졌고 양쪽 옆구리를 두드릴 때 통증은 없었다. 내진상 아무런 통증이 없었다. 먼저 소변 미세 검사를 하는데 현미경 상에서 다량의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세균이 검출되었다. 일단 요도 감염의 일종인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이를 후에 K씨는 소변이 맑아지는 것을 바로 느꼈다.

혈뇨란 글자 그대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혈뇨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의 증례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 상에서 적혈구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현미경 상으로만 검출되는 혈뇨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하지 않는 한 환자 자신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혈뇨의 원인은 K씨처럼 단순한 방광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장이나 비뇨기계 돌이 있거나 신우염과 같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방광염이나 신장암과 같은 비뇨기계 암인 경우에도 혈뇨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뇨기계 암의 빈도가 높은 노인에게서 혈뇨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병적인 경우가 아닌 때도 지속적으로 미량의 혈뇨가 소변에 검사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한 성인의 약 20% 이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례는 발열이나 외상, 격렬한 운동 등과 관계가 있지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혈뇨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빈혈 등의 전신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소경된 소녀가 손을 잡고 바구니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먹고 살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공책 30권을 사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달라고 선교사에게 전했다는 흐뭇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카고에 명문 기독교대학인 휘튼칼리지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표시입니다. 그 학

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부인은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비극이 아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불되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홀가분해지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중의 하나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24절-25에 “한 알

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엡4:22),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마3: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갈 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를 가리켜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존귀하고 복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름의 푸른 잎들이 가을의 단풍이 되어 한번은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보고 떨어진다면, ‘아버지, 당신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는 그 말 한 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박스 하나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생각을 하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성경은 아름다움에서 더 나

아가 존귀하고 복된 것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오직 길어가는 세월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바치는 것 외에 없다. 말씀가운데 ‘순종하시오’라고 말하면, 어디까지 순종하라는 거야!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고, 복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굽혀 순종하는 사람,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얼굴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좌절하여 떠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영예배: 오후 8:00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진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전 1:45 디너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 목, 금, 토, 일, 휴무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새벽 6: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목, 금, 토, 일, 휴무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주일 5부예배: 오전 10:4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주일 5부예배: 오후 4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캐플린 임상목회 (28)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무보험자 한인 동포와 미국의 사회복지

요즘은 거꾸로 한국에 사는 분들은 모두가 국가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각종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나 유학생들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의료사각지대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케어 시작 후 미국의 모든 거주자들이 의료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벌금제까지 도입하며 강력한 추진책을 펼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강제 조항이 철회되고 다시금 무보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사실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이 생계비 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저렴한 비용에 소위 메디케어라는 국가건강보험이 모든 병원비와 의사비를 지출하며 다만 처방약과 같은 보조보협만을 별도로 가입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가족들에게는 연방정부의 메디icaid나 각 주정부별 특별 보험지원 방안이 있어서 돕고 있습니다.

일전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 영아가 아직 불편한 한인 청년이 낙상을 해서 허리를 다친 채 실려 와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왔고 누이와 함께 자취를 하며 커뮤니티칼리지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18세의 한인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학생의료보험도 없었고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왔지만 거둬지는 각종 첨단 검사비용과 수술비용 등이 걱정되어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습니다. 누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연락을 했지만, 하시던 사업도 문을 닫게 되고 미국에도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환자와 가족을 진정시키고 위로해주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도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을 하며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고 육신의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예상되면서 좌절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시급한 치료를 위해 일단 검사와 수술을 받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간호사 및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사회복지사와 케이스 매니저와 면담을 해서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말해주고 조연을 구했습니다.

집착하신대로 환자는 미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원무과에서 와서 임원수속을 하면서 보험이 없으면 현금으로 수술비를 납부해야 수술을 해주는 줄 알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미국의 모든 종합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보험유무와 체제신분에 관계없이 일단 수술 동의서만 받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와 수술을 해주며 퇴원 전에 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일차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카운티와 시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입원과 수술비용을 커버하도록 노력하며,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환자나 가족들과 상의하여 감당할 수 있는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월부금납부계약을 작성하고 퇴원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인 청년은 거의 6만여 불이나 되는 수술을 보험도 없이 잘 받고 물리치료까지 받은 후 Rehab Center 까지 소개받아 단 1불도 내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과 누이 남매는 병원에 있는 동안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스테프들의 극진한 간호와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근 한인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는 누이의 소식과 많이 회복되어서 혼자 집 근처를 산책도 하기 시작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tdspark@gmail.com

아메리카지역 현장의 구조변화의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 (3)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서인도제도 카리브, 페루, 브라질은 아마존과 남부로 구분

5) 카리브 지부

카리브 제도는 서인도 제도(West Indies)로 부르기도 한다. 카리브해의 섬들과 국가를 가리킨다. 이 국가들 또는 섬들은 멕시코의 동남쪽부터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북서쪽까지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7000개의 섬과 암초가 존재한다.

“카리브 제도”라는 이름은 소안틸레스 제도의 카리브족에서 왔다.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인도에 도착했다고 오해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때 서인도 제도의 영유권 섬들로 이뤄진 서인도제도연방이라는 나라가 잠시 존재했다.

GMS는 C국,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수리남에서 1987년부터 사역하고 있다(GMS 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 p. 55).

6) 페루 지부

페루는 남미 서부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이다. 군부 정권이 십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다 1980년 민주주의로 전환하였고 최근에는 과감한 개혁과 꾸준한 경제성장의 바탕에 게릴라 활동 및 마약밀매와의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고 있다.

△종교의 자유 2(1-10) △전도인구 99.7%, 미전도 인구 68,433명(0.3%) △기독교인의 안전도 75(1-100), 순교자 18,500명 △연간교회 성장률 2.0%, 연간 새신자증가율 2.3% △선교현황 2(1-7) △성경번역 현황 신약부분 25/부분27/진행 21 △로마카톨릭교인-많은 기독교인-이교도적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민속 카톨릭과 전통적 폴럼버스 이전의 정령 숭배를 혼합한 종교를 따르고 있다. △무신론자: 페루 공산당(진리)과 페루공산당(진중)이 있다. △바하이 교인: 1964년에 13개의 지역 영적 모임에서 1973년 83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쿠쥬코 지역의 퀘추어 인디언 간에 성장이 있었다. △불교인: 대부분 일본 이주민들로 약간의 중국인이 있다. 소카 가카이로의 집단 개종이 있었다. △신종교인: 일본 종교인 소카 가카이와 신종교들로 1995년 정통 불교에서 소카 가카이로 개종한 이들의 숫자는 65,000명이었다. △토속 신앙인: 저지대와 정글의 35만 내지 아메리카원주민들 중 큰 부분이 1900년에 토속신앙인이었고 1995년 20만명이 아직도 정령숭배자들로 아우가루나인과

차야후이타인 등이 있다(GMS 2019,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 62).

7) 브라질 아마존 지부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아마존 강 일대의 거대한 열대 밀림지역으로 인디오(indio) 보호지역이다 약 3천만명의 인구가 있고 크기로는 브라질의 2/5의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다국 기업들(free zone)이 상주하는 곳이다. 기후는 열대 우림이며 건기(5-10월)와 우기(11-4월)로 나뉜다.

인구는 도시(마나우스 및 강변 소도시), 강변마을(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인디오(부족 개념으로 살아감)별로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아직도 신석기 시대적인 원시적 생활을 하는 인디오 부족들이 살고 있다. 또한 브라질인과 외국인 후손들이 혼혈되어 부락을 이루어 아마존 강변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Ribeirinho들이 아마존 지역에 약 1천2백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개신교가 가장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곳 중 하나라는 Sepal의 연구조사가 있었지만 주민의 70% 이상이 카톨릭의 영향으로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방해 받고 있는 지역이다. 아마존 주의 마나우스 시는 아마존 지역 교통 중심도시이다.

GMS는 1985년부터 인구분포에 따른 도시 사역과 강변 사역, 그리고 인디오 사역 등을 분배 및 연합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사역 형태에 따라 지도자 발굴과 훈련 사역(신학교, 그룹성경공부, 컨퍼런스), 교회개척(도시빈민, 강변마을, 인디오 마을), 인디오 부족 전도 및 이들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GMS 2019,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 66).

8) 브라질 남부 지부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전 세계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다. 인구분포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나라로 백인, 인디언, 흑인들이 섞여 있다. 현재 세계에 남아 있는 열대 다우림의 3분의 1이 아마존 강 유역에 펼쳐져 있다.

브라질의 주요 생산품은 농산물이며 철, 금, 인 등의 광산업이 점차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3세기에 걸친 식민지에서 1822년 독립한 브라질은 그 후 반세기 가량을 군부세력의 정치권 무력간섭을 받아왔다.

광대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브라질은 1970년대에 남미 경제 주도국으로 등장하였다. 부의 편재 상황이 아직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다.

△종교의 자유 7(1-10) △전도인구 99.8%, 미전도 인구 425,724명(0.3%) △기독교인의 안전도 52(1-100), 순교자 50명 △연간 교회성장률 2.2%, 연간 새신자 증가율 2.0% △선교현황 7(1-7) △성경번역현황 전체 1/신약 40/부분 31/진행 55 △무슬림: 1835년 아프리카 흑인들로 구성된 무슬림 남성 종파에서 반란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948년 이후 중동으로부터 많은 팔레스타인인, 레바논인, 시리아인, 이집트인 등 여러 아랍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또한 터키인들과 유고슬라비아인,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주민들이 있다. △무신론자: 친러와 친중, 두 개의 공산당, 1947년부터 모든 공산주의는 불법화되었다. △신종교인: 소카 가카이의 일본인신도들과 브라질 개종자들, 세카이 규세이교(세계구세주교 70%가 백인) 및 텐리교와 다른 일본에서 들어 온 혼합종교들이 있다. △바하이교인: 1921년 전에 들어왔다. 1964년에 16개의 지역영적모임이 1973년 87개로 증가하였다가 1996년에 이르러 198개로 급성장하였다. 주로 바히아와 북부지역에 있다. △불교인: 대부분 일본인(이주민 30%와 새로운 이주민들) 중국인들과 한국인도 포함된다. △유대교인: 독일과 중앙유럽의 이주민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 리오, 쌍파울로, 쿠리찌바, 헤시피, 벨로리존찌에 공동체들이 있다. △토속신앙인: 1500년경 약 200만으로 추산되어지는 정글이나 저지대에 거주하는 아메리카원주민들이 대량학살과 동화정책으로 1900년 230부족 50만명으로 줄었고 1964년에 20만명, 1972년에는 140부족(아마존유역에 91개 부족, 중앙에 35부족, 북동지역에 10부족, 남부지역에 4부족) 13만이 남았다. 1972년 이들 중 36%가 융화되었고 27%는 아직 변두리에 머물고 있다. 많은 종족들이 전통적인 정령숭배 및 현대와 역행하는 사교들을 고수하고 있다. △힌두교인: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있으며 리오데자네이로에 사마디 힌두센터가 있다. 또한 iskcon(하레 그리쉬나)에서 운영하는 2개의 센터와 농장이 있으며 나머지는 아난다 마르가에서 운영하고 있다(2018,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 71p).

kangsungchuel@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영어로 보는 성경 (2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CCLESIASTES

(2:11) Yet when I surveyed all that my hands had done and what I had toiled to achieve, everything wa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12:13)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NIV 1984)

WORD & IDIOM

* survey: 개관(측량)하다, 살펴보다, 고찰하다 * toiled: 힘써 일하다 *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 meaningless: 무가치한, 의미 없는 * chasing: 쫓음 * gain: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다 * conclusion: 결론

GRAMMAR

(2:11) Yet when I surveyed all that my hands had done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내 손으로 했었던

and what I had toiled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 내가 힘썼던 것

everything wa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모든 것이 가치가 없었다 바람을 잡는 것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해 아래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 그러나 내 손으로 했었던 모든 일과 성취하기 위해 내가 힘써 왔었던 것을 살펴보았을 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가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I surveyed all that ~ 에서 (that my hands had done)은 (all)이 어떤 것인지를 수식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that은 all을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everything wa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에서 (a chasing after the wind)는 바로 앞의 문장 (everything was meaningless)을 수식해주는 명사구이다. (명사(명사절) () 명사(명사절)) 형태의 문장이 보이면 뒤의 명사(명사절)는 앞의 명사(명사절)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된다.

(12:13)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이제 모든 것이 말하여졌다 일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다

⇒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그 일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 Now all has been heard는 수동태 문장이다. 그러나 우리말로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들었다)로 해석을 하고 semicolon(:)은 <그러므로, 그래서> 등의 의미를 살려 해석해 나간다. Colon(:) 이하는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는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is here의 도취된 1형식 문장이다. 1형식(S+V)의 문장에 쓰이는 Be동사는 <존재하다, 있다>의 뜻을 갖는다.

STUDY & THOUGH

■ 11절 말씀은 1-1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결국은 허탈감만 가슴에 남는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얻으려는 자신의 모든 시도가 참으로 무익하고 공허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 13절 말씀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른 삶이 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삶에서 전개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 If there is no salvation, and no God, then not only is there no point to life, but no purpose or direction to it either.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네게 물으러 오리니 너는...(왕상14:1-5)

네게 물으러 오리니 너는...(왕상14:1-5)

본문을 통해 여로보암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선지자에게 나아 갑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너를 속이고 오는 사람에게 그 집

안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 늘 솔직하게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때 세상에 그 어떠한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다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왕상14:5-9)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면이 취급해 운수를 알아보려는 자세로 나오면 오히려 남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이 왕비인 것을 숨기고 변장을 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운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까? 아닐까? 알아보려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은혜와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모습 이대로 늘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합니다.

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왕상14:10-20)

본문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늘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은 더욱 신앙을 든든히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히야 선지자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로보암 왕가에 심판을 그대

로 선포하는 담대함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끝까지 쓰임 받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도 하나님께 인정 받는 믿음을 가져 여로보암왕 이후로 다른 후손들은 모두 개와 새의 먹이가 됐지만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보호함을 받았습니 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목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왕상14:21-24)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는 중에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남유다가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 암몬 사람이라고 두 번 소

개되는데 그녀는 솔로몬에게 밀곰 우상을 갖고 들어와 숭배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은 40년 동안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좋은 신앙을 배우고 형통하고 태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왕이 된 다음에는 암몬 여인 어머니 나아마의 우상숭배 영향을 받아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왕상14:25)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한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이 타락하면 외환이 계속 곱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당하는 시련은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집니

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해서 당하는 고통은 정말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정할 후에 솔로몬 시대 평생에 외국의 침략을 받아보지 못하던 나라가 5년도 채 안되어 애굽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애굽이 몇 년 전만해도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제 침략을 해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왕상14:25-31)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줄 착각하지만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빼앗깁니다. 신앙이 타락하니 금방패가 늦방패로 바뀝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타락으로 빛을 잃음과 동시에 가난해짐을 말합니다. 금과 늦은 무게와 형체가 똑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빛이 나지 않고 가치에 있어서도 천차 차이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빛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타락하면 형제와의 불화가 계속됩니다. 진정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

홍콩 범죄인 인도법-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허핑턴포스트, “중국의 홍콩통제강화에 강력 반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 분석

최근 홍콩 시민 수만 명이 당국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발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고무 총탄과 최루가스를 쏘는 등 강경 진압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홍콩 정부는 일단 법안 심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허핑턴 포스트'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법' 개정의 배경을 정리했다(Hong Kong Extradition Law: Why Are So Many People Protesting? Thousands protest as police use force to disperse crowds outside the government's headquarters).

1. 홍콩은 중국의 일부인가?

홍콩이 중국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99년의 임대 계약이 끝나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고, 이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됐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그 뒤 50년 동안 자체적 사회, 법률,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이에 어긋나는 법적 변화를 점점 더 많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대해 홍콩 측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2. 범죄인 인도법은 무엇인가?

'범죄인 인도조례(개정안)'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 홍콩 남성이 작년 2월에 임신한 20세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 갔다가 살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래 이 법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고,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협약이 없으므로 대만으로 인도될 수가 없었다.

당국은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홍콩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며, 정치 및 종교 관련 용의자는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홍콩은 협약이 이뤄진 곳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법이 도입되면 홍콩, 중국, 대만, 마카오와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 용의자를 서로 넘길 수 있게 된다. 인도 여부는 사건별로 결정된다.

3. 반대하는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반대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홍콩 거주자들이 중국 사법제도의 탓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산당의 반대자들은 경제사범



이나 분명하지 않은 국가 안보 위반으로 기소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시위자들은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지난 9일에는 법안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이어졌다. 주최 측 추산 약 103만 명이 참여했다. 11일 밤부터 입법회 밖에 군중이 모였고, 12일부터 정부 건물 주위 주요 도로들을 봉쇄했다. 일부는 마스크와 헬멧을 쓰기도 했다.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 총탄과 최루 가스를 쏘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일부 업체는 12일에 휴업하기도 했다. 파업과 학생 시위 요구도 있었으나, 얼마나 동참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5. 시위자들의 주장은?

이름을 마르코라고만 밝힌 한 시위자는 “우리는 정부가 이 법을 버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킹이라고 밝힌 한 여성 시위자는 취업이 어렵고 주택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분수령을 맞은 홍콩의 젊은 세대가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시민의 소요에 대해 점점 더 강경책을 취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이름과 직업을 밝히지 않으려 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많다. 이런 행동들은 중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홍콩

주민들은 중국 국경에서 입국 금지 등을 당할 수 있다.

6. 정치인들은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나?

캐리 램 행정장관은 다른 국가 및 지역들과의 법적 구멍을 막는 데 필요하다며 이 법을 꾸준히 지지해왔

다. 그는 12일 늘 가져왔던 문답 시간을 취소했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우려를 고려했으며 인권 안전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변화가 없다면 홍콩이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캐리 램 행정장관의 말이다. 램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여부는 홍콩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앞으로의 전망

그러나 홍콩 정부는 15일 해당 법안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오후 3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했다”며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한 것에 대해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라며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을 ‘무기한’ 연기할 뿐 완전히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해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3)



김토마스 목사 (서울 CCM교회 담임)

실제적으로 좋은 음성을 만드는 테크닉 중에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것이 벨칸토 발성법입니다. 저는 벨칸토 테너인 카루소의 목소리를 관리해주던 의사가 1921년에 정리해 놓은 카루소 발성법으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성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가지고 성대를 올려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소리는 언어가 합쳐지기 전에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지켜야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Minimum Tension과 Minimum Breath입니다. 즉 최소한의 긴장감과 최소량의 호흡으로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호흡이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옛날 선생들은 산속에서 5년 정도 호흡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훈련도 하면서 폐활량을 늘리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벨칸토 발성법에서는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최소량의 호흡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흡이 풍부하고 폐활량이 아무리 커도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숨 쉬고 말할 기운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성기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성대에서 만들어지고 후두를 지날 때 긴장감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가입니다.

특히 후두음인 O, U, 중성모음 A 발음을 할 때 절대로 뒤로 먹지 않게 하며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최소한의 긴장감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든지 목에서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벨칸토 발성법 중 1921년 정리한 카루소 발성법 적용 연구 최소한의 긴장감과 최소량 호흡으로 성대에서 소리 만들어야

생리학적인 구조 (Physiological Mechanism)

우리의 발성기관들을 생리학적인 구조로 나누어 보면 발동부, 발성부, 발음부로 되어있습니다.

1. 발동부

모든 소리를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횡격막과 폐, 기관지 등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치형에서 플랫폼 상태가 되면서 복부의 내장 기관들을 누르기 때문에 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이 가득 채워진 상태의 에너지로 성대에 긴장감과 호흡을 보내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복식호흡이 필수인데 복부가 마치 풍선에 공기가 80% 정도 들어가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힘을 주면 그 긴장감이 목으로 전달이 되어서 좋은 소리를 만드는 조건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움직이는 공기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Moving Air). 그리고 어떤 음을 내든지 복부에 에너지가 항상 느껴져야 합니다.

높은 소리를 낼 때 긴장감이 가슴과 목으로 쏟아져 올라가지 않도록 아랫배에 항상 긴장감을 느끼며 무게 중심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2. 발성부

소리가 만들어지는 성대입니다. Vocal Cords 또는 Vocal Folder라 합니다. Cords는 Chords와 발음은 같은데 끈이나 줄이라는 뜻입니다. 성대는 근육 끈과 같습니다. 2개의 성대 근육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며 바이브레이션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 약기야말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감탄하게 됩니다. 성대가 근육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점점 건강한 근육으로 발전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아프거나 파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훈련에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친구 무슬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강사 : 김신숙 Biblical Christian Mission 대표
정마태 MIENAAI 공동대표
김기학 MIENAAI 실행위원
박한상 MIENAAI 상임총무

일시 : 2019년 7월 15-17일(7-10pm)

장소 :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참가비 : 40\$

주관 : Biblical Christian Mission

문의 : 김현완 목사 (714)525-0088 / (714)656-8802